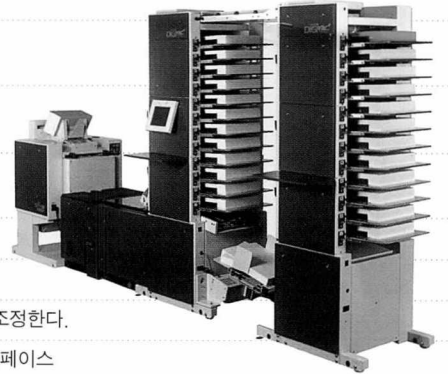


정합에서 중철까지 원스톱으로

DigiVAC	DIGIVAC	DIGIVAC PLUS
구성	8개 또는 12개 급지 공간, single tower	8개 또는 12개 급지 공간, single or two towers
생산량	시간당 3,500 set 이상 생산 (non-stop)	시간당 7,200 set 이상생산 (non-stop)
용량	60mm 이상 (급지 부분 용량은 계속해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종이 크기	120 × 200mm ~ 350 × 500mm	
접지 범위	50 ~ 300gsm+	
탐지기능	미스, 더블잼, 종이공급 에러 등 모든 작업 과정을 전자적으로 탐지해서 스스로 조정한다.	
컨트롤러	5-디지털 LED 디스플레이	컬러 터치스크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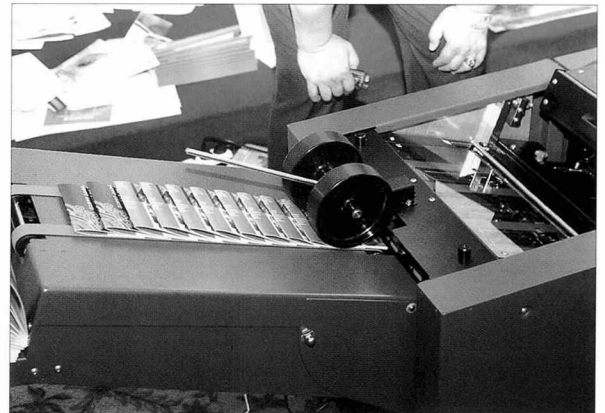


인쇄기기 수입전문업체인 PM교역(대표 한양우)은 지난 5월 11일 풍전호텔 4층에서 영국 Watkiss사의 정합 중철기인 'DigiVAC' 수입 런칭 행사를 가졌다. 오픈전 시행사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Paul Attew 본사 세일즈 팀장이 직접 제품을 시연하면서 진행됐다.

향상된 생산성과 사용자 편의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DigiVAC System'은 향상된 생산성과 사용자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자동 정합중철기로, 작업 도중에 종이 공급을 할 수 있어 급지를 위해 기계를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빠른 작업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을 50%이상 높였으며, 기존의 높은 타워 형태의 급지 부분을 없애 작업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작업자가 작업환경을 설정해 주면, 그에 맞춰 작업을 실행한다. 작업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8~12의 시트로 구성된 급지부를 연결할 수 있으며, 작업 중에 생길 수 있는 미스, 더블 잼, 종이공급 에러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탐지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는 단순히 'DigiVAC'의 작업속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인쇄물(종이)만 공급해 주면 된다.



한 단계 앞선 기술, DigiVAC Plus

이날 선보인 'DigiVAC plus'은 더욱 향상된 속도와 성능을 자랑한다. 시간당 7200여 세트의 작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정밀한 작업 시스템을 통해 종이조절, 중철, 접기, 자르기 등의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뤄진다. 이밖에도 'DigiVAC Plus'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고, 메모리 저장 기능으로 빠른 작업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 PM교역의 한양우 대표는 "이번엔 런칭한 'DigiVAC'은 한 단계 진보한 정합중철기로 빠른 작업 속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이 돋보이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국내 정합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